

보 도 설 명 자 료 (‘18.8.2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베란다 태양광’ 번쩍번쩍... 앞 동은 앞이 안 보입
니다. (‘18.8.29, 조선)

1. 기사내용

- ☐ 광주의 시민이 앞 동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로 시달리고 있음
- ☐ 김정희 BSI 건축과학연구소장은 “아파트나 밀집된 주택가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막으면 이웃집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”며
 - “여름철에는 태양광 패널과 벽 사이 공간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아랫 집에 열풍이 불어 들기도 한다”고 함

2. 동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

- ☐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 외장 유리보다 낮음
 - 모듈 제작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유리를 사용하며, 모듈 표면의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해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있음

< 태양광 모듈 빛 반사율 비교 (출처 : 한국태양광발전학회, ‘15.6) >

구분	강화유리	태양광 모듈	
		단결정 실리콘 모듈	다결정 실리콘 모듈
반사율(%)	7.48	5.03	6.04

* 가시광 영역인 400nm~800nm 파장 범위 측정 기준

- ☐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,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간 특이적인 온도차 없었음

* 출처 : 태양광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(건국대학교,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, 2011.11)

- ☐ 우리부 및 서울시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소비자 피해신고 사례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
황인택 사무관(044-203-5374)